

톡톡 튀는 식별력을 가져라



까까머리 중학교 2학년 시절의 어느 봄날이었다. 푸른 눈의 키다리 미녀가 교실에 들어섰다. 미국 평화 봉사단의 일원으로 입국하여 엇그제 부임한 영어 교사였다. 어린 처녀 선생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우리가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거리면서 서양 미녀를 감상하고 있을 때였다.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던 당번 녀석이 벌떡 일어섰다.

“어텐션! 바우!(Attention! Bow)”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이면 언제나 관례대로 선생님에게 던지는 첫 인사 ‘차려, 경례’ 였다.

“굿모닝, 씨!(Good Morning Sir)”

우리는 버릇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런데 웬걸, 화사한 미소로 대답할 줄 알았던 여선생의 얼굴이 홍당무로 변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부끄럽게도 실수를 한참 뒤에 인정해야 했다. 처음 만나는 꼬마

제자들이 남자들에게나 사용하는 ‘S’를 외쳤으니 그럴 만도 했으리라.

서양 미녀 선생의 이름은 제인 존스였다. 미소도 아름다웠지만 이름도 예쁘기 짝이 없었다. 제인 존스... 그 순간부터 나는 감미로운 그녀의 이름을 혀끝에서 굴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나를 바라보는 제인 존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수업중에 나와 시선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늘어났고 걸핏하면 내게 미소짓거나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절로 신이 났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 잘 하는 아이로 소문이 자자하던 터라 나는 더욱 용기를 얻었다. 영어 교과서를 달달 외워 제인 존스에게 자랑하는 것도 무척 즐거운 일이었다.

영어 웅변 대회를 앞둔 어느 날 제인 존스는 나를 학교 대표로 추천했다. 대표로 선발되던 날부터 그녀는 발음과 제스처를 교정해 주는 등 내게 맹연습을 시켰다. 그녀의 스파르타식 훈련은 강도가 높았지만 나는 행운처럼 다가온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연습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짝사랑은 조금씩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제인 존스 선생님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냉정함을 되찾았다. 내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친절히 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네가 잘나서도 예뻐서도 아니야. 너는 다른 애들과 달리 안경을 썼어. 그 안경 때문에 나는 너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단다.”

나는 제인 존스의 고백을 듣고 은근히 부끄러워졌다. 시골벽지 중학교의 전교생 900여 명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다.

“하나같이 까까머리에 모두 똑같은 검은 교복을 입고 있으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더구나. 결국 안경을 쓴 너

만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가 있었지.”

제인 존스가 나를 짝사랑한다는 착각은 그렇게 부서졌지만, 어쨌든 나는 안경 덕을 톡톡히 본 셈이었다. 영어 학습 초기에 미녀 선생으로부터 직접 발음 교정을 받을 수 있었고,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 없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 나는 행운이었다.

군대에 가서도 내 별명은 ‘안경’이었다. 상표를 예로 든다면 나에게 ‘식별력(識別力)’이 바로 ‘안경’이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개발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려면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식별력이라고 부른다. 내가 세계 도처를 여행하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지식 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행세하게 된 것은 ‘안경 때문에 얻은 식별력’ 덕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렇다. 현대는 튀는 사람에게 기회가 다가온다. 튀는 것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남보다 튀 수 있다면 승리의 절반은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나를 남과 차별화하는 것이 곧 경쟁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상표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너와 나를 구별하는 힘, 즉 식별력이다. 차별화하는 힘이다. 차별화는 ‘안경 쓴 소년’처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기술 내용은 같아도 개성이 넘치는 디자인과 톡톡 튀는 브랜드 이름으로 경쟁자들을 앞지를 수 있다.

조금만 눈을 돌려 보자.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제인 존스 선생’이 보일 것이다. 창조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하자.